

미장 향하는 개미들… 국내 증시 반등, 기업 실적에 달렸다

美 주식 순매수 지난달보다 5배 ↑
투자자에게 약 88.7조로 줄어
AI 수익성·주주환원에 관심 커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손절(손실을 보고 매각)하고 애플 샀는데 잘한 걸까요?” “잘하신 겁니다.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난 23일 애플 주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28.10% 하락한 6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4.42% 반등했다.

지지부진한 수익률에 지친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쌀 때 사겠다’며 받아내던 개인의 대기 자금과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증시로 향하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실적과 주주환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다.

◆“물러코스피에 질렸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8조6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4일 기록한 139조6947억원보다 51조105억원(36.5%) 감소했다. 9월 말 104조6644억원과 비교해도



지지부진한 수익률에 지친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15조9802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3일 100조982억원이던 예탁금은 14일 97조4280억원으로 내려가 100조원을 밑돌았다. 이후 21일 89조6343억원으로 90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2일에는 전날보다 9502억원 더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맡긴 돈 가운데 아직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다. 증시로 자금이 새로 들어오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늘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하면 줄어든다. 따라서 예탁금 감소액을 그대로 증시 이탈 규모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최근 대기 자금 유입 흐름과 매수 주체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매수 대기자금 역할을 하는 고객예탁금의 유입 속도가 코스피 흐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었다고 진단했다.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 잔고도 줄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9월 말 33조3901억원에서 지난 22일 30조3632억원으로 3조268억원 감소했다. 이달 12일 34조2886억원과 비교하면 3조9254억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22일에는 전날보다 922억원 늘어

최근 감소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잔고 감소에는 투자자의 자발적인 상환과 반대매매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모두 강제로 청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개미 심리 회복, 실적과 주주환원·AI에 달려

개인투자자 이모(34)씨는 보유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애플을 살지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는 서킷브레이커에도 익숙해질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결제금액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약 49억58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약 10억128만달러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약 50억299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시장은 외국인 반지리를 매물 매수 주체가 절실하다. 개미들을 다시 불러들일 유인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낮아진 주가와 기업 이익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각각 3.3배와 2.7배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실적과 주가의 괴리에 주목했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코스피

예상범위를 6000~1만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하락의 배경으로 기업의 기초체력 훼손보다 외국인 매도 물량을 소화할 매수 주체의 부재를 지목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이러한 수급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SK하이닉스(28일)와 삼성전자(29일)의 실적 발표에서는 업황 전망과 함께 추가 주주환원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도 있다.

투자 심리를 열어볼게 한 미국 빅테크의 실적도 관건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성장성과 함께 투자 성과와 지속성이 확인되면 신용·수익성 우려를 완화하고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도 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투자심리에 부담이다. 박기량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 유가 안정과 AI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실질 현금흐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낮추고 주주환원이 매수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증시의 주요 확인 지점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I발 증시 충격에 재계 시총 1100조 급감

SK그룹 시총 30% ↓… 낙폭 가장 커
HD현대·삼성·한화그룹도 타격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1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붐이 3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더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최소 47건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됐거나 철회됐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 약 35%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FT는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미 전역에서 1000곳 넘는 지역사회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

나 다른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에 가장 큰 수혜를 보던 SK하이닉스는 10월 들어 시가총액이 365조원 증발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AI발 우려에서 코스피가 추락하면서 10대 그룹 주가도 휘청이고 있다. 이달에만 시총이 1100조원 넘게 증발했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3371조4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약 4472조5308억원과 비교하면 약 1101조원 줄어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18.8% 급락한 영향으로, 10대 그룹 모두 시가총액이 줄었다.

가장 많이 준 곳은 SK그룹이다. SK그룹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1563조원에서

지난 24일 1093조원으로 30.1% 급감했다. 그룹 내 시가총액 비중 1, 2위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가가 인공지능(AI) 밸류체인 수익성 우려에 급락한 영향이다. 이달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가는 각각 28.1%, 32.0%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각각 365조원, 48조원 감소했다.

HD현대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약 128조원에서 지난 23일 95조원으로 25.6% 줄어 감소율이 두 번째로 컸다. 그룹 내 상장사 8개 중 5개가 조선주로 분류되는데, 최근 조선주 주가가 엇박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에 극심한 부진을 겪은 결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2161조원에서 1636조원으로 24.3% 감소,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도체주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70조원에

서 1260조원으로 19.6% 줄어든 영향이 컸다.

조선·방산 등 수출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화그룹은 시가총액이 약 120조원에서 97조원으로 19.3% 줄어 네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한화엔진 시가총액은 약 4조1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이달 34.2% 줄었고, 한화오션은 약 24조원에서 17조원으로 30% 감소했다. 그룹 내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은 약 52조원에서 41조원으로 21.4% 줄었다.

이외에 LG그룹의 시가총액은 190조원에서 180조원으로 5.3% 감소하는데 그쳤다.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540조원에서 505조원으로 6.4% 줄어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GS그룹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서 16조원으로 이달 13% 줄었고, 신세계그룹은 약 6조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2% 감소했다.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은 약 215조원에서 182조원으로 이달 15%, 롯데그룹은 약 17조원에서 16조원으로 4.3% 줄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AI로 민원 38만건 분석 불법사금융 조직 추적

금감원은 25일 피해 신고·제보·민원과 불법금융광고 정보 등 약 38만건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범행 구조와 배후 조직을 파악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 조직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데다 피해자들의 신고 시기와 경로도 달라 같은 조직의 범행이 별개 사건으로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축적된 정보를 함께 분석해 개별 신고에 가려진 조직적 범행을 찾아내기로 했다.

분석체계 가동 결과, 한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지난 3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던 ‘이실장’ 조직을 다시 추적한 결과, 확인된 피해 사례가 당시 파악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피해자 유입 경로도 추가로 파악했으며, 확보한 단서를 경찰에 제공해 핵심 조직원 검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광고와 피해 신고에 직접 연결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여러 피해 신고와 불법광고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등록업체의 신뢰를 이용하면서 불법 사채 영업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큰 등록업체 수습 곳을 추려 피해자 면담과 현장 기동점검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광고·대출·추심·영업을 나눠 맡은 분업형 조직들이 서로 연계해 활동한 정황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금융위·금감원 주요 제재 사전조율 정례화

쇄신안 공공기관운영위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제재 건에 관해선 금융위로 넘어오기 전 사전조율을 공식·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대상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때

주요 현안에 관해선 금융위와 공식·정례적으로 사전조율을 하게 된다.

현재도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필요시 금융위와 비공식적인 조율이 이뤄진다. 또 금융위 국장급이 금감원 제재심의회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루트도 있지만 당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이슈는 사전조율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금융위·금감원의 사전조율을 공식

화·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쇄신안에는 사전조율을 거쳐야 하는 대상도 함께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후 첫 거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홍콩 ELS 사태처럼, 최초의 사례여서 전례가 없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전조율을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진행할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선 향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주요 현안의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 노출이 잦았다. 대

표적 사례가 홍콩 ELS 불안전판매 관련 과징금 논의다. 지난 5월 금융위는 금감원이 애초 보내온 1조4000억원 과징금이 담긴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범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금감원이 애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정해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금융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금감원은 기존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로 다시 보냈다. 해당 제재안은 현재도 금융위에서 논의 중이다.

/허정윤 기자